

충남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 학술포럼

충남의 미래 2040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13:00~17: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강당

주최 · 주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프로그래م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1부 개원 기념식		사회 : 이상진 연구실장
13:10-13:28	18'	개 회 식 □ 참석자 소개, 일정소개 • 기념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축 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 축 사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13:28-13:30	2'	개원 21주년 공로자 포상
13:30-14:00	30'	개원기념 특강 □ 자치 시대 충남의 미래 • 심 대 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前충남도지사)

2부 학술포럼		사회 :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
14:15-14:30	15'	충남의 미래 2040 출판기념식 □ 경과소개, 집필진 소개, 전달식
14:30-15:15	45'	학술포럼_주제발표 □ 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 • 송 미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오 용 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홍 원 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15-15:25	10'	휴 식
15:25-16:45	80'	학술포럼_종합토론 □ 좌 장 • 강 현 수 충남연구원장 □ 토론자 • 안 희 정 충남도지사 • 유 익 환 충남도의회 부의장 •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우 천 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 미 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45-16:50	5'	폐 회 식

차 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개원기념특강 _ 자치 시대 충남의 미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1

1. 충남 저출산 · 고령화의 충격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9

2.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9

3.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33

[충남연구원 개원 21주년 학술포럼]



개원기념특강

『자치 시대 충남의 미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자치시대 충남의 미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들여가기

상상력과 창의력은 가장 큰 경쟁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I. 왜 지금 지방자치인가?

1. 시대상황의 급격한 변화

- 20세기 → 국가시대, Mass 시대, 획일주의, 효율성
- 21세기 → 지방시대, Detail 시대, 갈등 다기화, 민주성

2. 21세기의 생존 키워드 : 자율과 창의

- 창조적 경쟁력 창출
- 패러다임의 전환 : 지방주도 ▪ 중앙지원

☞ 시대흐름에 적절히 복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곧 도태되어 멸망하게 된다. - 앨빈 토플러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II. 지방자치의 현실



8

2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Ⅲ. 자치시대 충남의 미래

1.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충남의 시대적 과제

- 충남 비전의 설계
 -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
- 충남의 자긍심 : 충남 정신 발양
- 인본과 경영행정
 - 공직철학의 실천과 충남 4대권 개발계획 마련

2. 미래를 위한 제언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to)?
-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to) ?
-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How to) ?
- 누가 할 것인가(What to) ?

Ⅳ. 변화의 시작 : Vision thinking

- 지방은 의식을 ☞ 자율과 창의
- 중앙은 인식을 ☞ 조정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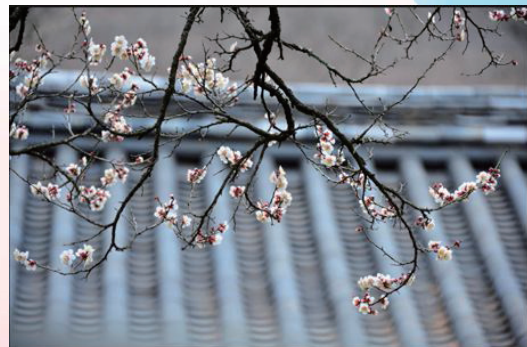
★ Vision ☞ thinking을 넘어 Design

- 현실 바로보기 ☞ 냉철하게 현실 파악
- 미래 멀리보기 ☞ 창의적 상상력 발휘
- 더불어 함께보기 ☞ 리더십과 추진력 동원

⇒ 비전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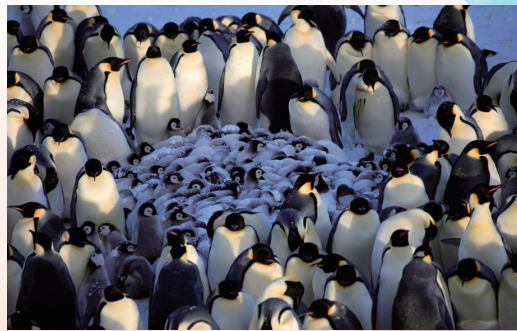
V.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

☞ 옛 선비들의 탐매정신(探梅精神)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새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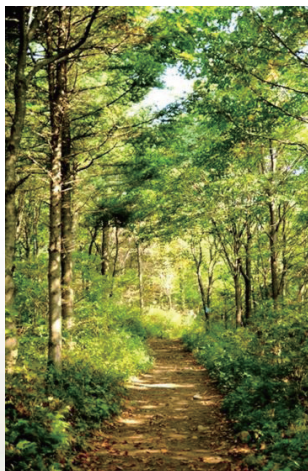
☞ 황제펭귄의 협동정신(協同精神)



혹독한 고난과 역경을 협동으로 극복!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Ⅵ. 마 무 리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

—
걸어온 길 · 걸어 갈 길 · 함께 가야 할 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감사합니다





01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16.06.10.

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

목 차

- I. 현재와 미래모습
- II. 미래위험과 불안들
- III. 문제에 대한 해법 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li.re.kr

I. 현재와 미래모습

- 01. 저출산 경향의 지속
- 02. 초고령 사회로 진입
- 03. 초고령 노인의 증가
- 04. 인구이동의 선택성
- 05.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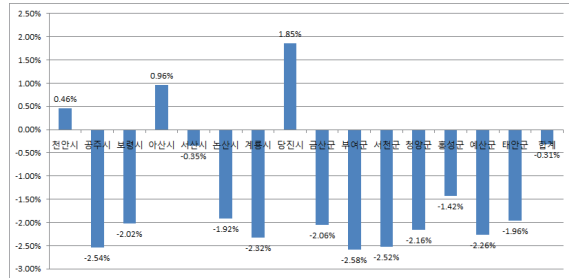
01 | 현재와 미래모습 저출산 경향의 지속

-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출생아수 절대 감소
- 출산율 1.42명(전국4위, OECD 1.74명)
- 가임여성수, 혼인건수, 출생아수 등 절대 감소

■ 2040년까지 출생아수 지속 감소 예상

- 2015년 92,867명 → 2040년에 85,590명 감소
- 충남 전체의 연평균 출생아수 증감율은 -0.31%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수 감소(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가임여성 수 (15~49세)	472,610명	470,034명	△2,576
혼인건수	12,482건	12,040건	△442
출생아수	18,628명 (1.44명)	18,200명 (1.42명)	△428
평균 출산연령	32.06세	32.17세	0.11
초혼연령	28.84세	28.95세	0.11



(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제225호)

저출산의 지속 및 초저출산 현상 지속 가능성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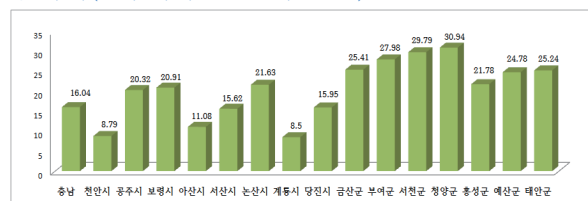
02 | 현재와 미래모습 초고령 사회로 진입

■ 2014년 기준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인구대비 노인인구 20%)

■ 2040 충남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의 고령화

- 초고령 사회인 10개 시·군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지속가능성, 고령사회인 2개 시·군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 고령화 사회인 3개 시·군의 고령화 사회 유지 혹은 고령사회로의 진입가능성

- 향후 2040년까지 25년간 노인인구 증가율은 7.49%로 전망



시·군별 총인구대비 노인 인구 현황 (송미영 · 김희경, 2015)

2020년	2030년	2040년	연평균증가율
388,719명	543,795명	708,065명	7.49%

충남의 노인인구 전망(충남연구원, 2016)

인구의 초고령화 지속될 것으로 전망

2/11

03 | 현재와 미래모습 초고령 노인의 증가

■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 급속 증가(고령노인이 2005년 16.2% → 2015년 24.9%)

구분	전체	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2005년	1,982,646	261,800	94,764 (38.2)	78,332 (29.9)	46,494 (17.8)	26,601 (10.2)	11,089 (4.2)	3,608 (1.4)	763 (0.3)	149 (0.1)
2015년	2,077,649	341,214 (100.0)	95,908 (28.1)	84,488 (24.7)	78,011 (22.3)	52,180 (15.3)	22,559 (6.6)	7,721 (2.3)	1,712 (0.5)	68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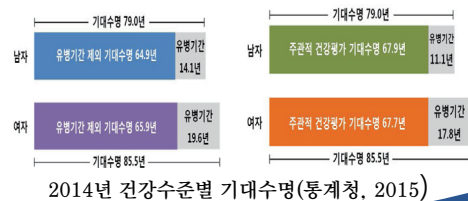
충남의 노인 연령별 비율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 2016)

■ 높은 독거노인 비율

- 2015년 12월말, 93,532명(27.4%) : 남성(28%) vs 여성(72%)
- 독거노인 중 빈곤독거노인 17.2% : 남성 26% vs 여성 74%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성별 차이

-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낮을 것으로 예측



초고령노인의 증가와 삶의 질 저하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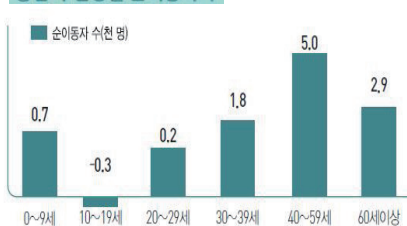
04 | 현재와 미래모습 인구이동의 선택성

■ 인구 이동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전광희, 2016)

■ 충남은 10~19세 인구가 순유출, 기타 연령대는 순유입(2015)

- 이러한 연령대별 이동의 선택성은 충남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 20세 미만의 인구이동은 두 가지 이유.
 - ① 피부양자로서 부모를 따라가는 가족이동의 일부
 - ②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다른 지역의 학교로 보내는 경우

충남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



출처: 충남인포그래픽제15호 재구성 (2015년도 데이터)

■ 여자 이동인구의 연령분포는 남자와 다름

- 20~24세 연령대는 작은도시에서 큰도시로의 이동경향이 강함
- 충남 순유입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여자는 25~34세, 남자는 35~44세
- 여성 고령층(65세 이상)은 충남으로의 전입보다 전출이 큼, 남자는 반대 흐름

인구이동은 지역의 사회적 · 물질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인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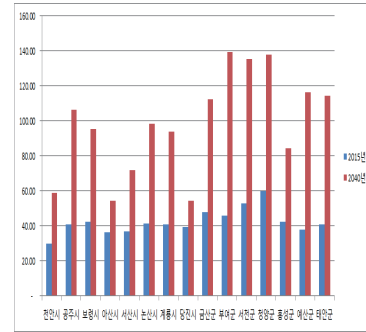
05 | 현재와 미래모습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연관성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성이 있는 인구학적 사회문제

- 노령화 지수 :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사회의 부양부담을 측정
- 유년 부양비(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하는 15세 미만 유소년층 비율)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

■ 노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비 증가 (젊은층 부담 ↑)

- 2015년에 생산가능 인구 1인당 37.23명을 부양
- 2040년경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67.45명을 부양



(심재현, 2016, 충남리포트)

사회적인 부양부담이 커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5/11

II. 미래위험과 불안들

01. 벼랑 끝 젊은 층
02. 인구절벽으로 불안한 충남의 노후
03. 지역 간 불균형

01 미래위험과 불안들 벼랑끝 젊은층

■ 삼포세대에서 N포세대로

- 출산의 장애요인 중 취업불안(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직장 고용불안, 양육비용 걱정 등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큼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부족, 양성평등가치, 세대통합가치 등 사회문화 미성숙 등이 저출산 경향 부채질
- 여성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으나 일·가정 양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산 회피가 예상되는 조사결과
 - 현재 미취업자 중 전에 직장에 다닌 적인 있는 경력 단절자는 48.1%, 여성은 51.9% vs 남성(39.6%)
 -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 원인은 결혼과(26.1%), 임신·출산(20.4%), 이 중 약 42.9%는 3년 이후 재취업 기대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1순위 정책은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32.1%),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 (20.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13.8%) (충청남도, 2014)

-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가족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족분야의 성평등 세부지표 비교 (2014년)
- (단위: 완정평등수준=100.0)

구 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22.9	100.0	91.4	52.3	66.6
분야 1위 지역	30.0	100.0	99.5	64.1	73.4
전국평균	25.8	95.0	93.8	46.6	65.3

* 자료: 여성가족부(2015b: 135). 자료원(*):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청년기의 출산육아정책을 고용과 연계해서 설계하는것이 핵심(NEAR 재단, 2011)

6/11

02 미래위험과 불안들 인구절벽으로 불안한 충남의 노후

■ 고령화 사회의 불안들

-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하지 않으려는 의식 변화가 뚜렷
 - 충남 사회조사(2015)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정부/사회'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31.5%), '스스로 해결' (25.8%) 등의 순
-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오히려 부담 혹은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소득에 대한 불안(노후파산),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불안 등
- 노인학대(자기방임, 자살)
- 일본,독일 등 초고령 국가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과 관련된 건강보험정책,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대 간 격차 및 갈등 심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용구조 변화, 신노년 문화의 등장, 주거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노인중심으로 변화
- 주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슈는 노인빈곤, 고독사, 치매노인, 자살, 돌봄 인력 부족 및 돌봄비용 부담 증가, 이주배경을 가진 노인문제, 노인범죄 증가, 지역인구 불균형 등(강은나 외, 2014).

당면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

7/11

03 미래위험과 불안들 지역간 불균형

■ 학교의 양극화 심화

-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도서지역 학교들이며, 도심지역은 학교확대 이전 및 신설이 잇달아 양극화 양상
-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 및 이농현상, 폐교로 인해 지역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등 저출산으로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의 학생수급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 인구이동의 결과, 지역간 경제 불균형

- 충남 지역경제의 발전은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도내 다른 시군 지역들과의 경제 불균형은 심화되어 충청남도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전광희, 2016)

8/11

Ⅲ. 문제에 대한 해법 찾아보기

01. 기회의 충남
02.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01 | 문제에 대한 해법 기회의 충남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 인구감소보다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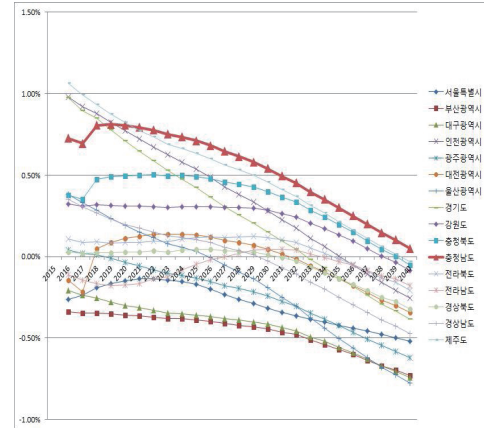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2040년까지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자치단체임(통계청, 2014; 심재현, 2016)

◎ 2040년 경 충남 · 대전 · 세종의 전체 인구는 약 438만 명

→ 전국 인구의 8.6%(심재현, 2016)

■ 25세 이후 여성인구가 충남으로 순유입

◎ 25-59세 연령대는 순유입 경향을 보이고 있음(전광희, 2016)



2040 시도 인구증감율(심재현, 2016)

인구예측(인구증가 0% 이상) & 인구이동(25세 여성의 인구 유입)

9/11

02 |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충남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 저출산 대응전략

◎ 젊은 층이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이 충남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등)

◎ 성 평등한 사회 참여와 성평등 의식 · 문화

(출산장애평인 지원: 아픈 아이 돌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돌봄 휴가제도’ (스웨덴, 덴마크)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조성(탄력근무, 노동시간, 임금격차 해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인권보장 (가족정책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

– 출생아수의 증가도 중요하겠으나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 인권지향적인 충남 지향

– 이주아동의 유형을 고려하여 취약한 사회권의 보장, 지역주민의 이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등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전략

10/11

02 |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해법

■ 초고령화 대응 전략

● 마을중심의 공동체

- 면 단위 또는 읍 단위 중심으로 인구를 모아서 마을중심 공동체 운영' 을 모색
- 마을 공동체(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확대 (사회적, 정서적 지지)

● 근거리 케어,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 지자체에서 적절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 (돌봄인력 처우개선)
- 지역사회의 노인이 자살, 범죄, 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구축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전략

11/11



감사합니다



02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목 차

- I. 여는 말
- II.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 III. 2040 공간구조 전망
- III. 맺는 말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

yjuno@cni.re.kr

요약문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1. 여는 말

다수의 국토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초광역화되면서 충청·세종권 전체를 물리적으로 포섭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KTX 운행과 남북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충청·세종권이 한 시간 생활권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수도권(이하 지방이라 한다)은 대(大)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격렬히 반대하였는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신(新)균형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의 경향성을 토대로 2040년 충청남도 지역발전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다.

2.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경향성은 무엇인가?

국토개발 차원에서는 국토공간구조를 일극종형(一極從型)구조에서 다극형(多極等形)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노무현정부 이전까지는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축을 중심으로 일극종형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04년부터 노무현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극형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하는 국토개발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되었다. 지방이 수도권 발전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관념을 보기 좋게 혁파(革罷)하였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은 무엇인가?

다수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동안 충청권의 발전동력은 세종시 동북 방향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이입되어 왔다. 그 초입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다양한 국가성장동력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개발의 기회나 흐름들이 대부분 세종시 동편으로 치우쳐 있어 세종시 서측에 위치한 충남 내륙지역은 세종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요소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는 동해안에서부터 세종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연결하는 중부동서축이 국토의 주류축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충청남도는 2006년부터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도청을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시키며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토공간을 다극화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KTX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TX 공주역 주변지역에는 풍부한 백제문화·관광자원과 군사·행정중심도시가 입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KTX 공주역이 금강 발전회랑의 허브(Hub)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2040년 충청남도 공간구조 전망

미래 충청남도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는 국토개발과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을 토대로 구성할 수 있다. 시나리오 A(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는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연계된 메가 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기능을 분담하여 성장하는 수요대응형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정책 개입이 없을 경우, 중추 관리 기능이나 고부가가치 기능은 수도권에 의존한 채, 충청권은 저부가가치 분공장 경제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발전 전력이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 소비지로 보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수도권과 충청권 간에 환경 갈등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면, 정부 정책이 개입될 경우에는 충남의 주력 산업이 수도권의 후방연관산업과 연계하여 내수경제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ii

시나리오 B(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는 기존 수도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하는 수요창출형 시나리오이다. 세종시에 국가 행정의 중심 기능이 도입되면서 충청·세종권의 위상이 수도권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중심의 신(新)수도권 구축을 통해 베이징~세종~도쿄를 잇는 '뉴 베세토(New BESETO)' 개념의 글로벌화도 가능할 것이다. 충청·세종 대도시권이 수도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권으로서 국가 기능과 광역기능을 특화하고 분담하게 되면, 기존 경제수도권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서울 경제권에서 담당할 때 빛이 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충남~경기도 간에 긍정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연합체(아산만 도시권 등)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 활성화 뿐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충청·세종 대도시권은 초광역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간구조 하에서 영국의 도시권 협상(City Deals)처럼 자립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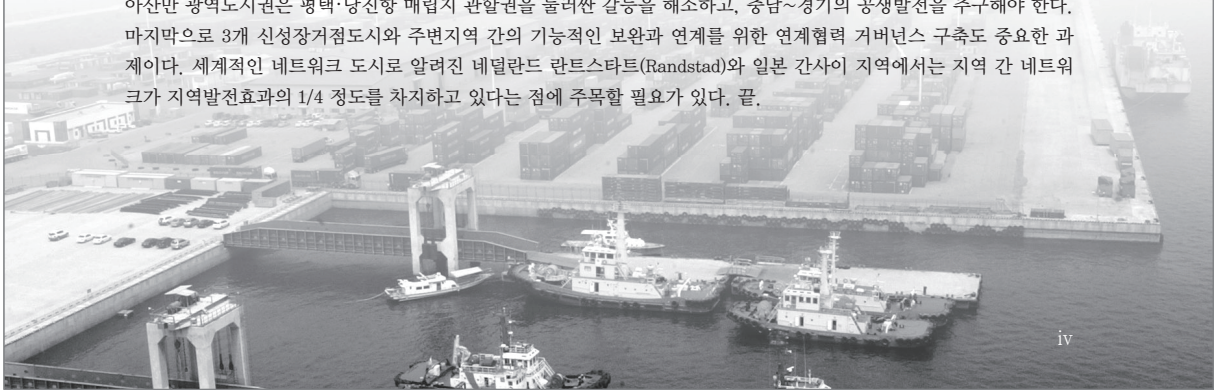
4. 맺는 말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시나리오 A)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간정의의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서 메가 도시권정책(수도권의 초광역화)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수단이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충청남도가 신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공간단위(초광역, 광역, 지역, 기초, 동네 등)별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발전이다. 신균형발전의 목적은 공간정의(Spatial Justice)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추구하며 국가발전에 대한 지방의 기여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iii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시나리오 B)는 행복도시 발전이 하나의 신(新)수도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서울경제권과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新)수도권 발전전략은 새로운 경제권역으로서 위상과 역할(책무),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을 규정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세종권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신(新)수도권 발전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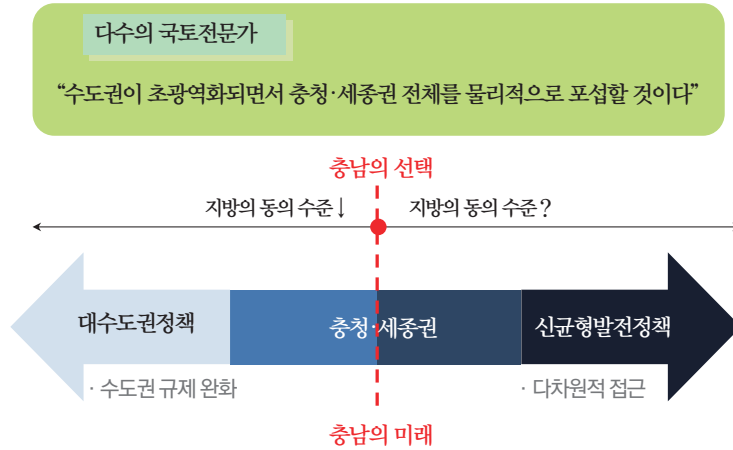
두 개 미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1 지역발전정책이 필수적이다. 이 정책은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과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그리고 아산만 광역도시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의 미래를 여는 상생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환황해권의 성장거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산만 광역도시권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충남~경기의 공생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개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인 보완과 연계를 위한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도시로 알려진 네덜란드 란트스타트(Randstad)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는 지역 간 네트워크가 지역발전효과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



I. 여는 말

01 | 여는 말 시나리오 전망의 배경

■ 광역도시화 전망의 필요성과 목적



국토개발 경향성을 토대로 미래 공간구조 변화의 시나리오를 구상

1/11

Ⅱ.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01.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02. 충남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경향성은?

01 |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 역대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박정희정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

- 남동임해지역에 신공업단지 개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전두환·노태우정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91)·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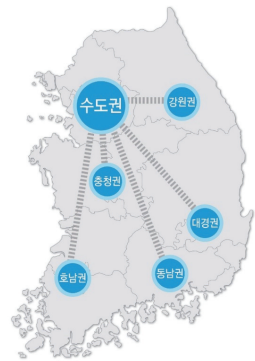
- 수도권 성장 억제와 지역경제권 육성에 의한 국토의 균형개발 논의를 실천

김영삼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

- 1994년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전국 7대 광역권(아산만권, 군장광역권 등) 개발

노무현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 vs. 이명박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11~'20)

- 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 이명박정부: 연성적 국토체계, 초광역권 및 5+2광역경제권 육성, 세종시 수정안 발표('10)



다극형형(多極橫型) 국토공간구조 vs. 일극종형(一極從型) 국토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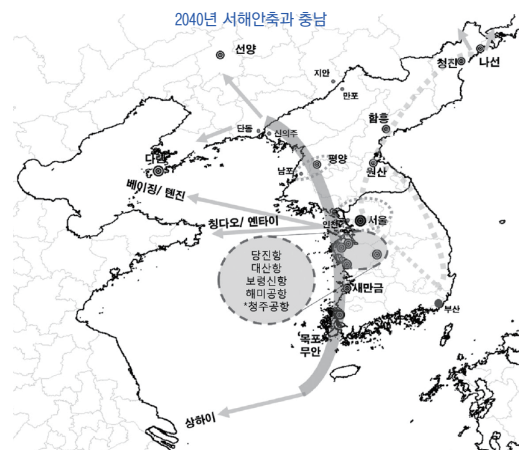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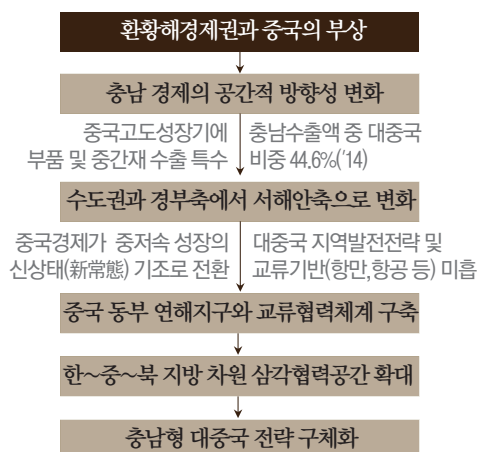
2/11

충남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은 무엇인가

02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충남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환황해경제권의 개막



자료 : 박인성, 2016, 환황해권 시대와 충남의 대중국 전략, 충남의 미래 2040

환황해경제권과의 직교류기반 구축 vs. 지역경제 발전의 정부축 의존성 심화

3/11

Ⅲ. 2040 공간구조 전망

01. 전망 시나리오

02. 시나리오 전제조건

시나리오 **A** (속도권 연담화 시나리오)
: 충청·세종권이 기존 속도권과 연계되어
메가(Mega) 도시권으로 성장하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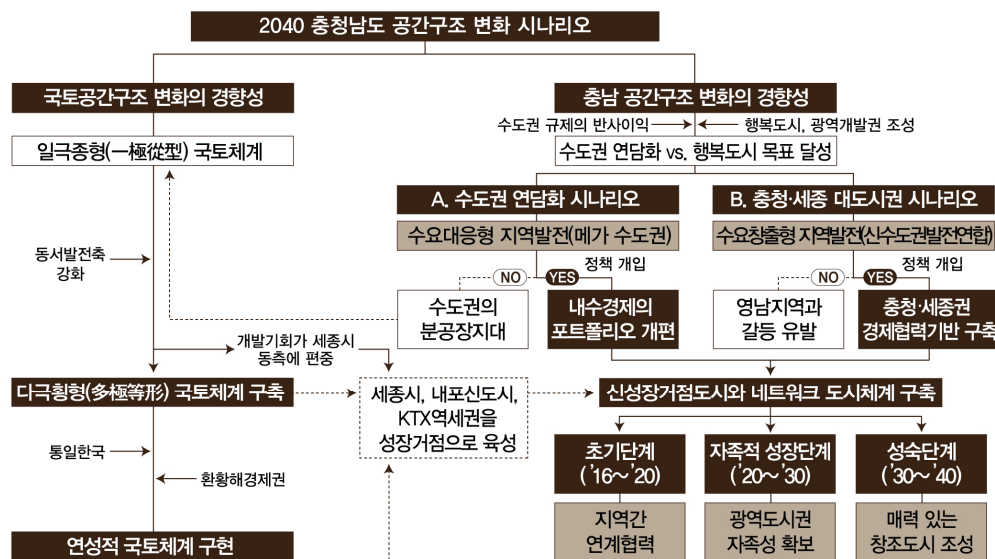
시나리오 B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신수도권 발전연합)을 형성하는 시나리오

01 2040 공간구조 전망 전망 시나리오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2040 충남의 공간구조 전망 :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 vs.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



8/11

02 | 2040 공간구조 전망 시나리오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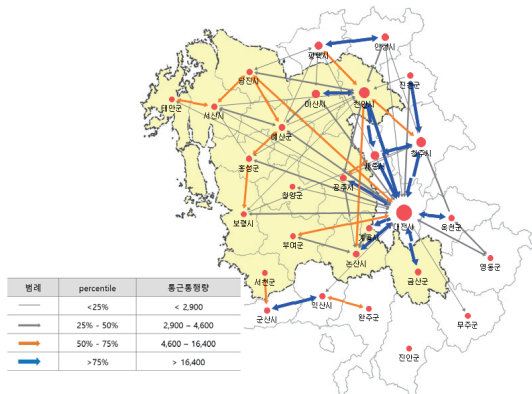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광역도시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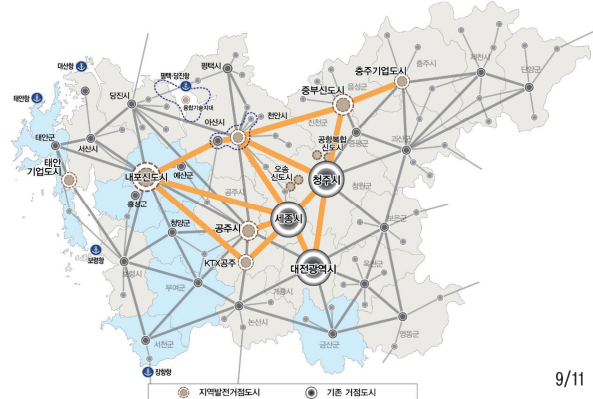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아산만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도시체계

-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 : 네트워크 도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 기회요인(신도시 개발)을 활용,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남 미래발전을 견인
- 아산만 광역도시권 : 충남과 경기의 상생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충청권 내 지역 간 평균 통근·통행 패턴



충청·세종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9/11

02 | 2040 공간구조 전망 시나리오 전제조건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광역도시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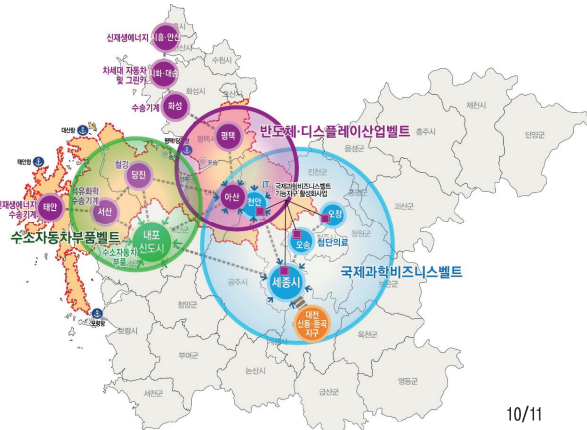
아산만 광역도시권은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효과적인 대상 → 공동 발전목표가 필요

- 상생발전배경 :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상생과 협력이 필요
- 공동발전목표 : 충남과 경기의 상생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기여하도록 설정

아산만 광역도시권 상생협력사업(예시)

부문	상생협력사업	주요내용
국제 경쟁력 강화	중국제 도시 동부연안도시와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산업 간 연계, 문화 및 관광 교류, 대기질 보호 등
	세계적 수준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	평택·당진항 대외 생산교역 중심거점 조성	내항지역을 아시아 투자산업 지역으로 육성
	충남-경기 공동발전계획 수립	제2차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2020~2040)
광역 경쟁력 강화	아산만권 신성장거점도시 육성	기업도시, 신도시, 국제화도시 규제프리존 지정 등
	대항해권 디스플레이 매가 클러스터 조성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부문의 자립
	아산만권 랜드마크사업 추진	접근지역에 상생산업단지 조성
광역 경쟁력 강화	아산만권 광역관광진흥사업 추진	유교문화권, 조류탐조, 관광 공동프로모션 등
	아산만권 환경 보전	삼포호 수질 관리, 대기질(미세먼지) 관리 등

아산만 광역도시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성(안)



10/11

IV. 맺는 말

01 | 맺는 말 충남의 선택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 미래 충남의 공간발전구도는 수요대응형 vs. 수요창출형 정책 선택으로 결정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메가 도시권(수도권~충청·세종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 다차원적 공간단위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환경정의 차원에서 자원배분방식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신균형발전정책 추구

충청·세종권 대도시권 시나리오는 서울경제권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 영국의 도시권협상(City Deals)*처럼 새로운 경제권역(New BESETO, 베이징~세종~도쿄)으로서 위상, 책무,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을 설정하는 신(新)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 * 중앙정부가 도시연합체인 LFP(지방정부와 기업 간 협의체)와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방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활용,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과 경제활동주체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미래 충남 공간발전구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1 지역발전정책이 필수적이다

- ①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②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③아산만 광역도시권의 정책목표 달성
-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광역도시권 간의 기능적 보완과 연계를 위한 ④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11/11

감사합니다.



03

『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목 차
1. 전환기에 직면한 충남 경제
 2. 충남이 직면한 외부환경 변화
 3. 충남이 지역혁신공약을 위한 과제
 4. 변화된 충남 지역혁신을 위한 과제

충남연구원 정책연구팀
www.chnri.or.kr

2016.08.10

2016.06.10.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목 차

- I.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 II. 충남이 직면한 외부환경 변화
- III. 중장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IV.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I.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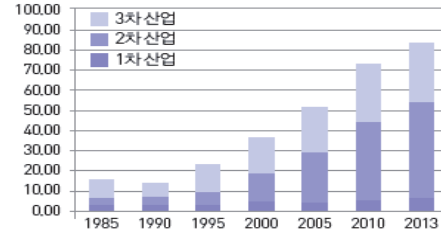
- 01. 충남 경제 성장의 성과
- 02. 충남 경제의 특징과 취약점
- 03. 충남 경제 전환기의 의미

01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 경제성장의 성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급속한 발전

- 2차 산업 비중: 15.1% (1985) → 57.0% (2013)
- 연평균 경제성장률 7.0%, 전국 최고 (2000-2013)
- 1인당 GRDP 전국 2위 (2014년)

※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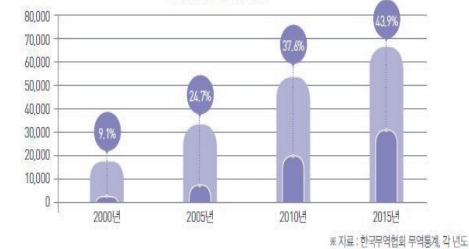
충남의 노동시장 여건 비교적 양호

-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지표가 전국지표보다 양호하거나 대등
- 경제활동인구 학력은 다른 도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

대외교역 규모의 급증

- 수출이 170억 달러(2000)에서 650억 달러(2015) 수준으로 급증
- 중국수출 비중 9.1%(2000)에서 43.9%로 급상승

※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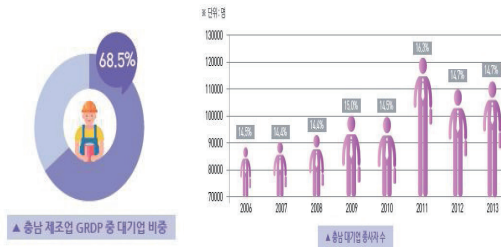


01/13

02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경제의 특징과 취약점

■ 대기업 의존 제조업 구조

- 대기업의 충남 제조업 GRDP 비중 약 70%, 전국 2위
- 충남 대기업 종사자수 11만 명, 전체의 14.7%(2013), 전국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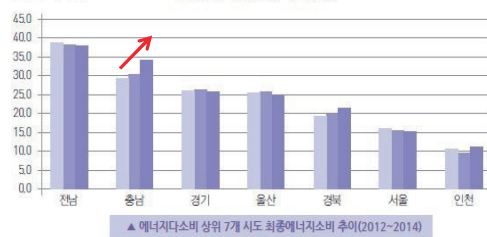
■ 수출(특히 중화권) 중심 구조

- GR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72.4%(2013년)
-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수출 비중이 전체의 2/3

■ 에너지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
- 대규모 화력발전소 충남 서해안 지역 집중

※ 단위: 백만 TOE



02/13

03 | 전환기에 처한 충남 경제 충남경제 전환기의 의미

- 경제가 어렵다고 ‘전환기’ 라는 말을 쓰지 않음
- 전환기란 글로벌 생산분업 체계에서 충남이 담당했던 역할이 바뀌고 있음
 - 대기업은 서울에 본사, 충남에 공장을 두는 입지전략을 구사.
 - 대기업은 충남에 조성한 생산 네트워크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간재 수출 거점으로 활용.
 - 기업 주도로 수도권, 충남, 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생산분업체계 형성.
- 이러한 충남경제(제조업)의 위상이 현재 흔들리고 있음
- 충남경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외부환경 변화
 - 수도권 규제 완화 · 중국 경제 구조 변화 ·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03/13

II.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01. 수도권 규제 완화
02. 중국 경제 구조 변화
03.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04.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01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수도권 규제 완화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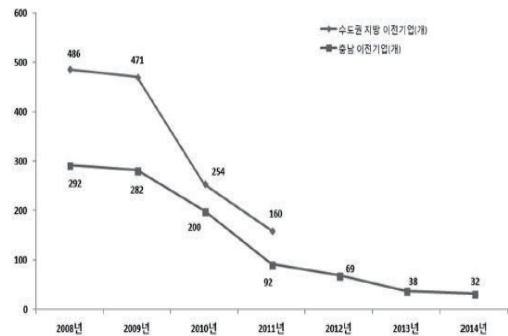
■ 이제 충남은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2011년 이후 충남 이전 기업 수 급감
- 일부 기업은 수도권으로 회귀
- 충남 입지 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

■ 글로벌 분업체계 관점에서 변화를 대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과 가깝고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여전
- 기존 산업 기반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음
- 타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

[그림 1] 수도권 이전 기업 현황



출처: 충청남도 기업 유치 현황 내부 자료 및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2011년까지만 제공), 충남 경제비전 2030 보고서 재인용(%는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중 충남 이전 기업 비율)

04/13

02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중국 경제 구조 변화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중국의 “뉴노멀(New Normal)”

- 고도 성장 → 중속 성장
-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
- 서비스 산업 발전, 내수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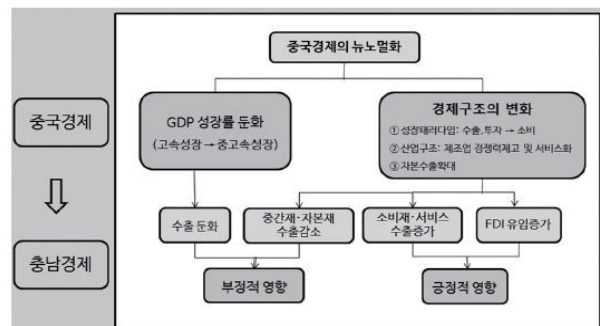
■ 뉴노멀은 양날의 칼

- 수출 둔화 및 중간재, 자본재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전망
- 충남 경제에 소비재·서비스 수출 증가 및 FDI 유입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중국제조2025’ 은 충남 주력산업 경쟁 심화

- 충남의 대중국 수출품은 중간재 비중이 72.8%에 달해(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 ‘제조업2025’ 는 적극적인 중간재 산업 지원 정책을 의미 * 2012~2014년 사이 충남 디스플레이 생산액 크게 감소

[그림 2] 중국 경제의 뉴노멀화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5

05/13

03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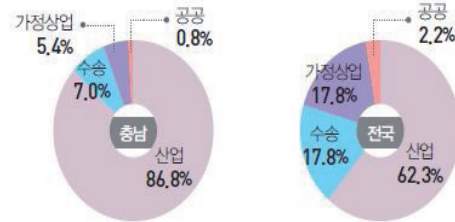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전세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국내 25.7%, 국제시장 활용 11.3%) 감축 공표

■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충남에 큰 영향

- 충남의 서해안 화력 발전소 밀집 → 에너지 공급량 전국 1위
- 에너지다소비 대규모 제조업체 입지 → 산업소비 86.8%



▲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4)

■ 위기는 기회를 잉태하고 있음

-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절감 기술, 친환경기술 요구 거세져 → 도태되는 기업 발생
- 에너지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구조로 전환 기회

06/13

04 | 충남이 직면한 외부 환경 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 수도권 및 중국 등 신흥국 주요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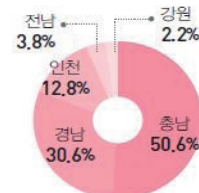
- 충남 서북부지역과 경기남부 통합된 경제권역
- 중국 환발해만, 메콩강 경제권과의 교류와 협력
- 중국과 긴밀한 교류 협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

■ 충남 주력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 중국 내수시장 겨냥 소비재 산업 육성 필요
- 산업별 온실가스규제 대응전략 모색

■ 충남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 새로운 기술과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등
- 현 전력생산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 단기: “석탄화력 멈춤 신화가 필요” (여형범, 본서)
 - 장기: 화석연료 대체 태양광, 수소 등



▲ 발전용 석탄제품(유연탄) 소비 비중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14)

07/13

Ⅲ.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01. 지역 경제 다양성 확대
02. 지역혁신 역량 및 협력 강화
03.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01 |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지역경제 다양성 확대

전환기 충남경제의 도전

-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특화는 경로의존성과 고착 때문에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음
-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관광, 건강보건 산업 등 · 산업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촉진
-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
 - 서민경제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 산업의 다양성뿐 아니라, 기업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 일자리의 다양성도 필요
 - 다양한 기업 의 공존: 산업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 기업 간
 - 상이한 산업간 상호 상생 공존
 - 다양한 수준의 기술: 첨단산업에서 적정기술까지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청년, 여성, 노인, 은퇴자 등 자기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08/13

02 |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지역 혁신역량 및 협력 강화

■ 수직 피라미드 계층 산업 구조의 경쟁력은 갈수록 취약

-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층형 산업 생태계는 선진국 모방 추격 단계에서는 효과적
- 창조와 혁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움

■ 충남은 물리적 집적은 있으나 연계가 취약

- 산업과 기업의 집적 * 충남은 이미 여건 구비
- 연구개발 역량, 다양한 지식기반 서비스, 기술과 숙련을 갖춘 풍부한 인력
- 지역 내 경제주체들을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산-학-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관계 구축 → 지역혁신체제로 나아가야
- 기업지원 기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09/13

03 | 중장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춰야

- 충남의 도시와 농촌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
- 산업 유치, 기업 혁신, 지역소득 외부유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부정적 영향
- 장기적 종합적 계획아래 꾸준히 실천해야 할 과제 → 어렵지만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 도시와 농산어촌을 두루 갖춘 충남은 새로운 거주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의 잠재력 높아

- 성공적 시범사례 만들어 확산
- 농촌형 전원마을 조성, 도시형 골목길 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 내포신도시, 안면도 개발과 같은 단위로 모범사례 확장

10/13

IV.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01. 충남 지정학에 대한 성찰
02. 우리나라와 충남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야
03.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 모색

01 |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충남지정학에 대한 성찰

전환기 충남경제의 도전

■ 충남의 지정학적 잠재력

- 충남은 대륙과 해양, 내륙과 해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업과 공업이 만나 어우러지는 지역
- 이러한 ‘어중간한’ 지역은 상이한 흐름이 만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어중간한’ 지역이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나?

- 백제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재창조하여 다른 나라에 전수
- 당시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자신의 문화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

■ 충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만 진정한 동아시아 주역으로 발돋움

- 지난 20년 간 충남의 성장이 입지적 우위라는 하드웨어에 기반한 성장이었음
- 미래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11/13

02 |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우리나라와 충남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야

■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공 역사 ‘한류’

-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프리미엄 형성, · 소비재 경공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 ‘한류’ 가 충남의 산업 다변화에 기회의 창 제공

- 이식된 수출제조업에서 지역의 농산물 가공, 자연,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으로 산업 다변화
-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

■ 충남 경제성장의 성과는 미래 충남의 밑거름

- 전기전자, 기계, 금속, 화학 등 고르게 발달, 든든한 농업 비중
- 충남 제조업 본사 비중 급증(홍성호, 본사)

사업체 유형		지역	2006	2010	2014
제조업	본사	전국	19.7	18.6	17.6
		충남	20.4	24.9	25.7
	단독사업체	전국	60.1	61.2	62.3
		충남	40.9	41.6	45.0
	공장	전국	20.2	20.2	20.1
		충남	38.7	33.4	29.4

12/13

03 |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 모색

■ 흔히 산업화는 도시화를 수반하고 이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동일시

- “도시화는 인간의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

■ 충남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장기간 유지될 전망

- 충남 인구 증가 둔화(2040년 245만 명), ·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충남 행복한 삶터 만들기를 위한 실마리

- 대도시일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며, 도 광역지자체가 만족도 높아(동아일보, 2015.12.11.)
- 충남 읍 지역이 면 지역이나 동 지역보다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행복감 높아(한귀영, 2015)

근자열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13/13

감사합니다.